

# “도내 철새도래지 주변 낚시·산책 자제하세요”

전북농관원, AI 확산 방지 위해 당부  
 동림저수지·금강하구둑 등 7곳 대상  
 불가피할 경우 AI 대응수칙 준수 중요

전국적으로 철새를 통한 AI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18일 철새도래지에서 낚시 또는 산책객에 의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설정한 '출입통제' 지역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에는 동림저수지, 동진강, 만경강, 금강하구둑 등 7개소의 철새도래

지가 있다. 농관원은 고병원성 AI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방역실태 등 현장 점검을 주 1회 실시해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다.

농관원이 37개반 136명(전북12명)의 점검반을 통해 철새도래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만경강 주변 등 철새도래

지 주변에서 낚시 및 산책하는 사람들이 발견돼 AI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103개 철새도래지 ▲AI 발생지역 ▲지자체에서 설정한 '출입통제' 지역 ▲저수지·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에서 낚시 및 산책을 자제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AI 대응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내부의 철저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및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를 꼭 이행하고, 사육 기금에서 이상여부 확인 시 방역당국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중기 제품 구매 담당자 사기 진작 통한 구매확대 유도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공공구매 촉진대회 열어  
 이소영·김태형·김술씨 등 5명 도지사 표창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는 지난 18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담당자를 표창하고 격려하는 '2020 전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매년 1회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전국 지자체 중 전북에서 유일하게 개최하는 행사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공로가 큰 지자체,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

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1명의 수상자와 소수의 중소기업인만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라북도지사 표창에 이소영(남원시청), 김태형(순창군청), 김술(고창군청), 김정환(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다정(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에 김동일(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임양현(전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에 신재인(정읍시청), 박경배(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방조달청장 표창

에 이대웅(전북교육청), 방재돈(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이 수상했다.

박승찬 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설명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각종 민원이나 감사 등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주기를 당부하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적극 구매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동부권 화훼 소득원  
 신화종 '헬레보루스'  
 남원 운봉지역 중심 재배  
 늘어 농업인 인식도 변화

전북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동부권의 화훼 소득원 발굴을 위해 2016년부터 고품지 적응성이 우수한 신화종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농가 현장 실증재배, 전문가 초빙 재배기술 세미나 및 소비자 기호도 평가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헬레보루스는 그리스, 터키가 원산지인 구근 식물로, 헬레보어, 크리스마스 로즈, 사순절 장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따뜻한 지역에서는 겨울에 꽃이 피고 우리나라 중부지방 노지에서 3, 4월에 꽃이 피는 작목이다.

또한, 화색과 화형이 다양하고 관상 기간이 길며, 부케, 웨딩용 및 꽃꽂이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남원 운봉지역을 중심으로 라넌큘러스, 헬레보루스, 아네모네, 스카비오사, 베로니카, 작약 등 다양하고 새로운 화훼 품목의 재배가 늘어났고, 소비자의 새로운 소비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신화종 도입 재배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익산=장영민 기자

## 408억 규모 중기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LX, '대한민국 중소기업 혁신대상'에서  
 7년 연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수상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주력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앞장서고 있다.

LX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을 수상한 데 이어 헤럴드경제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혁신대상'에서 7년 연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사가 408억 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적극 지원한 데 기인한다.

LX는 그동안 LX공간드림센터'를 통한 윈스톱 공간정보 창업기업 지원,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R&D 공모전 개최, 공간정보 협력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상생희망펀드' 조성 등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했다.

올해로 5년 째 운영 중인 'LX공간드림센터'는 매년 공간정보 분야 창업기업 10곳을 선정, 지원금·사무실·컨설팅 등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LX는 지역 상생을 위한 기금 조성에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공간정보 협

력기업과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희망펀드를 200억원으로 조성한 데 이어 지역 농촌의 지원을 위한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3억원을 마련하면서 상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공사는 중소기업부가 추진 중인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LX는 지난 3년 간 총 100억 원의 개발기금 조성에 참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중이다.

더 나아가 LX는 전북혁신도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학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산학협력 R&D 연구과제'(20억 원)를 진행, 지역 대학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김기승 부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토정보 전문가인 LX가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LX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사업인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정보 서비스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김제농협,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따른 발빠른 대처 '눈길'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김제시 집단감염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6개 동·면 전체 조합원에 대해 KF94마스크 50매(1box)씩 총18만 장을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상 지원했다.

김제농협은 지난 10월에도 전체 조합원에게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맞추어 18만장을 지원 한바 있으며 이번에도 김제지역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

목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정용 조합장은 "마스크는 현시점에서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스크 무상지원을 진행했다. 그는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도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온 힘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착공식과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선포식이 지난 18일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새만금, 그린 뉴딜의 신호탄 쏜다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재생에너지 및 그린산단 사업'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와 함께 지난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 착공식 및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 그린 뉴딜의 시작을 알렸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발전규모 0.1GW · 1580억원 투자 육상태양광 착공  
 문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통해  
 3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발표 후 첫 착수

매립이 완료된 5공구(2019년 12월)이며, 6공구는 매립이 완료되는 2021년 5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 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인

사(장 강팔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와 함께 지난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육상태양광 착공식 및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만금 그린 뉴딜의 시작을 알렸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육상태양광(300MW) 3개 구역 중 1구역에 해당하며, 사업자 공모(2019년 10월)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사(지역기업은 6개사)가 주주로 구성된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이 추진한다.

총면적 1.15km, 발전규모는 0.1GW이며, 투자금액은 약 1,580억원으로 2022년 발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규모 0.1GW · 1580억원 투자 육상태양광 착공  
 문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통해  
 3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발표 후 첫 착수

프라(기반시설) 조성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12월 1일에는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산업입지법 및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돼 사업진행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K-뉴딜의 선도 모델이 될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온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면서 "RE100이 가능한 스마트 그린산단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그린수소 생태계까지 구축되면, 새만금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육상태양광(300MW) 3개 구역 중 1구역에 해당하며, 사업자 공모(2019년 10월)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사(지역기업은 6개사)가 주주로 구성된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이 추진한다.

총면적 1.15km, 발전규모는 0.1GW이며, 투자금액은 약 1,580억원으로 2022년 발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육상태양광(300MW) 3개 구역 중 1구역에 해당하며, 사업자 공모(2019년 10월)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사(지역기업은 6개사)가 주주로 구성된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이 추진한다.

총면적 1.15km, 발전규모는 0.1GW이며, 투자금액은 약 1,580억원으로 2022년 발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육상태양광(300MW) 3개 구역 중 1구역에 해당하며, 사업자 공모(2019년 10월)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사(지역기업은 6개사)가 주주로 구성된 (주)새만금희망태양광이 추진한다.

총면적 1.15km, 발전규모는 0.1GW이며, 투자금액은 약 1,580억원으로 2022년 발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규모 0.1GW · 1580억원 투자 육상태양광 착공  
 문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통해  
 3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발표 후 첫 착수

프라(기반시설) 조성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12월 1일에는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산업입지법 및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돼 사업진행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K-뉴딜의 선도 모델이 될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온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면서 "RE100이 가능한 스마트 그린산단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그린수소 생태계까지 구축되면, 새만금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올해 北 식량작물 440만톤 생산

농진청, 전년보다 5.2% 감소 추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18일 '2020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북한지역의 기상과 병해 발생 및 비료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자료와 위성영상분석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올 한해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40만 톤으로, 지난 2019년도 464만 톤에 비해 약 24만 톤(5.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이 202만 톤, 옥수수 151만 톤, 감자·고구마 54만 톤, 보리류 16만 톤, 콩류 및 기타 잡곡 17만 톤 등이다.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22만 톤(9.8%)이 감소했다. 벼 재배기간 동안 강우량이 많았고, 일사량은 적었으며 벼가 여무는 시기인 8월부터 장마와 태풍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옥수수는 작년 대비 1만 톤(0.7%)이 감소했다. 개화기인 7월부터 이삭이 여무는 8월까지 장마가 이어지고 일사량이 부족해 옥수수 생장과 여물 상태

가 나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감자·고구마는 작년 대비 3만 톤(5.3%)이 감소했으며, 벼 감자는 가뭄, 여름 감자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받아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리류는 작년 대비 1만 톤(6.7%)이 증가했다. 가을에 파종(씨뿌림)한 보리류는 겨울철 온난한 날씨로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봄에 파종한 보리류는 불철 가뭄과 병해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콩류도 작년 대비 1만 톤(7.1%)이 증가했는데, 재배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 토양 내 수분 공급이 원활해 생산량이 우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북한지역의 작물 생육기간 동안 평균기온은 19.8도로 작년 보다 0.5(9.8%)이 감소했다. 벼 재배기간 동안 강우량이 많았고, 일사량은 적었으며 벼가 여무는 시기인 8월부터 장마와 태풍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옥수수는 작년 대비 1만 톤(0.7%)이 감소했다. 개화기인 7월부터 이삭이 여무는 8월까지 장마가 이어지고 일사량이 부족해 옥수수 생장과 여물 상태

전북은행, 국가유공자 등 위한 '사랑의 이불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7일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주영생)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이불 나눔' 전달식을 실시했다.

소외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마련된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 전북동부보훈지청 주영생 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전북동부보훈지청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가정을 추천받아 2백만 원 상당의 겨울이불 50채를 지원했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추운 날씨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가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전북동부보훈지청을 통해 2014년부터 매년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방한복, 온열매트, 겨울이불 등을 전달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윤상 기자